

전남도 “2018년 中 관광객 33만명 유치”

전남도가 현재 16만명 수준인 중국인 관광객을 오는 2018년 33만명으로 늘리기 위해 계층별·연령별 타겟 3대 중점 과제 18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1일 “민선 6기 공약사항인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2020 중국인 관광객 1500만명 방한 대비 중국인 관광객 유치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종합계획은 현재 연간 16만명 수준인 중국인 관광객을 2018년까지 33만 명으로 2배 늘려, 현재 전국 9위의 방문율을 7위까지 끌어 올린다는 목표를 담았다. 외래객 유치 기반 조성, 휴양·힐링 등 특화 여행상품 출시로 여행 만족도를 높여 재

계층별·연령별 타겟 3대 과제 18개 사업 추진 무안공항 노선 확대·사후면세점 특화거리 조성

방문 유도,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등 3대 중점과제 18개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중국 정가성 전세기와 저비용항공사 유치를 계기로 매년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는 무안국제공항의 중국 관광객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항공기 지상조업서비스, 상업시설, 대중교통망 확충 등 수용 여건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중국 관광객이 선호하는 소품 관광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도 추진한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상가 밀집지역

을 중심으로 사후면세점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지역 농수특산물을 판매하는 전남 명품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중저가 관광숙박 시설 투자 유치를 실현해 2018년까지 2700실을 확충할 계획이다. 트윈침대, 개방형 안내 데스크 설치 등을 통해 모델 30곳을 준호텔화해 900객실을 추가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중국인 개별 관광객을 위해 여행코스 자가설계, 교통정보, 예약 등을 모바일에

서 지원하는 남도여행 앱을 구축하는 한편 음식, 생대, 워딩 촬영, 뷰티 미용 등 주제로 특화여행상품을 중국 현지에서 온라인 판매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평생 바다를 접하지 못하는 중국 중서부 내륙 지역에서 실명 등을 갖는 등 공을 들일 계획이다. 이 지역은 중국 전체 인구의 53%에 해당하는 7억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기한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무안국제공항 중국 노선 확대, 크루즈 인프라 완비 등 전남 관광 여건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며 “각 과제로 내실 있는 추진계획을 마련해 전남이 목적관광지로 자리매김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

광주 공동주택 재건축 연한 10년 단축

40년→30년으로 ... 162개 단지 1만7000가구 조기 가능

광주의 공동주택 재건축 연한이 기존 준공 후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 단축된다.

광주의 노후 공동주택 162개 단지 1만 7천여가구의 재건축이 조기에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이같은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해 1일부터 시행한다.

시는 올해 5월 28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맞춰 관련 조례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와 주민의견 청취, 시의회에서 의결해 이날 공포했다.

개정된 시행령이 노후·불량 건축물 기준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리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시는 이를 이번 개정 조례에 반영했다.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수 구분없이 1983년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현행대로 재건축 연한을 20년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1984년부터 1993년까지 준공된 건축물은 22년에서 30년이 경과하면 가능하도록 했다. 1994년 이후에 준공된 건축물도 연한을 앞당겨 최장 30년이 지나면 재건축을 할 수 있다. 기존에는 40년이 경과해야 했다. 현재 광주시에는 공동주택 1천1개 단지 37만1천여 가구 있는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재건축이 가능한 30년 이상 공동주택은 162개 단지 1만7천여 가구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1986년에서 1990년 사이에 건축된 공동주택을 조기에 정비할 수 있게 됐다”며 “주차장 부족 등 주거 환경 개선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에 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 5개시·군 연계 ‘빛고을 남도투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광주 생활권인 나주·담양·화순·함평·장성 등 5개 시·군을 하나로 묶는 관광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광주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남도 관광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동일 생활권인 나주 등 인접 5개 시·군의 관광 상생 발전을 위해 ‘빛고을남도투어’를 3일부터 운영한다.

빛고을남도투어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을 계기로 광주의 도심관광과 지역 전통 문화자원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5개 시·군의 자연관광을 결합해 변화된 관광 흐름에 맞춘 남도만의 특화된 관

문화전당 중심 나주·담양·화순·함평·장성 내일부터 문화관광 해설사 탐승 3개 코스

광상품이다. 공휴일과 매주 토·일요일에 3개 코스로 운영하며, 각 코스마다 문화관광해설사가 탐승해 안내한다.

주요 코스는 송정역에서 출발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담양·장성을 연계한 송정역→터미널→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성 백양사→담양 죽녹원→환벽당(누정체험프로그램)→소쇄원→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나주·함평 코스로 송정역→터미널→국립아시아문화전

당→국립나주박물관→황포돛대→함평 엑스포공원→광주김지타운(김지체험프로그래)→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화순코스로 송정역→터미널→국립아시아문화전당→화순적벽→무등산 중심사→광주 전통문화관→양림동역사문화마을→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남도의 맛과 멋, 흥을 느낄 수 있는 관광상품으로 운영한다.

빛고을 남도투어 시간표 확인 및 사전 예약은 금호고속(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버스한바퀴 홈페이지(www.kumhoarund.com)를 통해 가능하며, 광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도 탐승권을 구매할 수 있다. 또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인접 5개 시·군의 박물관 및 축제 행사장을 연결하는 셔틀버스를 운행해 남도를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문화전당 예술극장 앞에서 담양세계대나무박물관과 연결하는 셔틀버스는 이미 운행 중이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달 11일부터 위탁사업자를 공모해 신청한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적격 심사한 결과 금호고속(주)가 선정됐다. /채희종기자 chae@

전남도 공공비축미곡 연말까지 매입

포대비 11만, 산물비 1만3000t

전남도는 2015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을 연말까지 100일간 진행한다. 전남에 배정된 포대비는 전국 38만8000t의 29%인 11만1000t이며, 산물비는 전국 11만2000t의 12%인 1만3000t이다.

매입 기간은 산물비의 경우 11월 14일까지, 포대비는 10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시·군 물량 배정은 농림축산식품부 배정 기준인 2014년 공공비축미곡 매입 실적 90%, 농업진흥지역 면적 10%를 적용한다.

매입가는 포대비의 경우 통계청에서 조사한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평균산지 쌀값을 조곡(40kg)으로 환산한 가격이며, 산물비는 포대비 매입 가격에서 포장비용 40kg당 849원을 차감한 가격이다.

산지 쌀값이 결정되기 전에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우선 지급금 5만2000원

(1등급 40kg 기준)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2016년 1월 최종 가격 결정 후 정산해 준다.

매입 규격은 포대비의 경우 40kg과 80kg 단위로 반드시 규격 포장재에 담아야 하고, 품위는 농산물검사기준인 벼 검사규격을 적용해 수분이 13.0~15.0%로 건조된 벼만 매입한다. 특히 수분이 13.0% 미만인 경우 두 등급을 낮춰 합격 처리된다.

매입 대상 농가는 2015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을 희망해 리·통 공공비축미곡 매입협의체로부터 출하 물량 배정을 받은 농가다. 매입량은 농협과 리·통장이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농가가 추진한 2015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계약서의 농가별 물량이다.

매입 곡종은 2015년산 일반계 매벼로, 정부가 2015년 시·군별 매입 대상 품종으로 사전 예시한 2가지 품종 가운데 농가에서 생산된 벼(발베 제외)에 한한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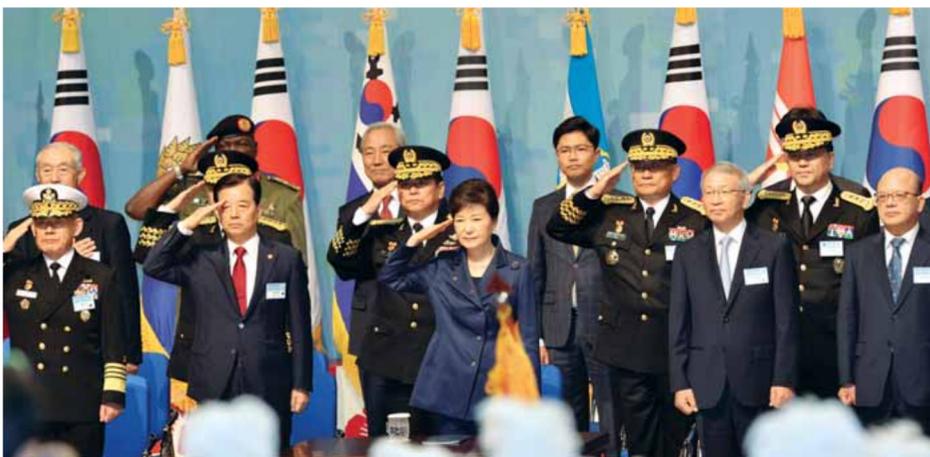
“北, 핵·장거리미사일 중단을”

박대통령, 국군의 날 기념식

박근혜 대통령은 1일 “북한은 우리 민족의 운명을 위태롭게 만들고 세계 평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핵개발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6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북한이 핵을 고집하는 한 고립은 깊어질 뿐이며, 경제발전의 길도 결코 열릴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대결이 아닌 대화의 장으로 나오면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경제재건을 적극 도울 것”이라며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우리와 국제사회가 내미는 협력의 손길을 잡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거수 경례하는 박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1일 계룡대 대강당에서 열린 건군 제6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IS 김군’ 피격 사망설 진위 파악 나서

지난 1월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에 가담한 김보(18)군이 최근 미국 등의 공습으로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30일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우리 정부 및 정부 당국이 진위 파악에 나섰다.

정보 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날 김군의 피격 사망설에 대해 “관련 보도가 나온 상황이어서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한 당국자도 “보도와 관련해 제반 사항을 파악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 언론은 이날 정보당국 및 중동 현지 소식통을 인용, 지난 23일 미국과 요르단 연합군이 시리아 북부 IS의 근거지인 라카 일대에 대한 공습을 단행했고, 공격 대상에는 IS 분파 내 김군이 몸담고 있던 외국인 부대가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어 200여명의 외국인 부대 가운데 80여명이 공습으로 사망했다면서 김군의 사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제18회 서편제 보성소리축제

2015.10.17.(토)~10.18.(일)

제18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
전국한소리·고수경연대회 일정

흥과 멋의 우리가락! 아름다운 보성소리의 향연

- 일시 : 2015. 10. 17.(토) ~ 10. 18.(일)/2일간
- 장소 : 다향체육관, 보성군문화예술회관, 서편제보성소리전수관 등

구분	예선		본선		
종목	분야	일시	장소	일시	장소
민소리	대학및 일반부 명창부	2015.10.17.(토) 13:00 *경연순서 추첨 : 10:00 다향체육관 대기실	다향체육관특설무대	2015.10.18.(일) 10:00	다향체육관특설무대
	신인부 학생부	2015.10.17.(토) 13:00 *경연순서 신인부 추첨 : 11:30 예술회관 로비 *경연순서 학생부 추첨 : 13:00 예술회관 로비	보성군문화예술회관	2015.10.18.(일) 10:00	보성군문화예술회관
고수	신인부 학생부 일반부 명교부	2015.10.17.(토) 10:00 *경연순서 추첨 : 08:30 전수관 야외무대	서편제보성소리전수관	2015.10.18.(일) 10:00	서편제보성소리전수관

- 참가신청
 - 접수기간 : 2015. 9. 1. ~ 10. 16. 18:00까지 도착 분
 -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및 대리 신청, FAX · 우편 · e-mail 신청가능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1부(소정양식), 반명함판 사진 2매
- 참가비 : 없음
- 신청접수
 - 접수처 : 보성군청(문화관광과), 보성문화원(제18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추진위원회)
 - 주 소 : 우)59455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 접수안내 : ☎ 061)850-5202~5205, 5892 FAX : 061)850-5249 e-mail : ymh0918@korea.kr
 - * 자세한 사항은 보성군홈페이지 http://www.boseong.go.kr를 참고하십시오.

녹차수도보성 전국한소리·고수경연대회 명창부 대통령상!

주최/주관 보성군 보성문화원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문화재청 전라남도 KoTPA 문화체육관광부 (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